

8 인터뷰-정호승(국문학 1968) 동문

“인간이라는 슬픈 숙명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길”

김륜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국어 교사와 잡지사 기자로 활동했던 정호승 동문(국문학 1968)은 『슬픔이 기쁨에게』, 『수선화에게』, 『부치지 않은 편지』 등 수많은 걸작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시인입니다. 시대와 타자의 고통을 사랑으로 어루만져온 그가 문학관을 개관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손에 그의 시집 『슬픔이 태백로 왔다』를 들고 대구 행 열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매달 첫 번째 화요일마다 ‘정호승 시인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콘서트로 그는 사람들과 만납니다. 항상 다른 주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눕니다. 콘서트가 열리는 날, 문학관 1층 북카페의 모든 자리는 만석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나누는 것이라는 그의 철학처럼, 문학관에서 “밥만으로는 충당되지 않는 영혼의 양식을 서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웅대한 사랑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정 동문의 사랑 시에 한 노년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를 끄적이고, 시민들은 함께 사랑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처럼 정 동문은 자신의 시를 통해 ‘사랑’의 진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며 정 동문의 어떤 삶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가난과 불안의 대학시절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학 시절을 환기하며 “가난에 외롭고 미래에 외로운 시기”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사정은 정 동문을 더욱 필사적으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에 장학생으로 1학년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신입생은 대학 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달마다 용돈 5천 원을 받으면, 절반은 당시 머물렀던 전농동 자취방 값으로 나갔고 한 달 식비까지 생각하면 남는 게 없었다”며 “돈 한 톨도 없는데 학과 후배들이 나보고 점심 사달라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할 때면 가슴이 철렁했다”고 웃어넘기기도 했습니다.

가난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2학년부터는 기성 문단에 등단하지 않으면 장학금이 나오지 않았던 터라, 정 동문은 어떻게든 장학금을 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며 “미팅이나 동아리 같은 활동도 제대로 하지



“나를 위해 쓴 시가 나에게 위안이 되고, 인생의 깨달음이 되고, 이해가 먼저 돼야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는 자신만의 철학을 가진 정호승 동문은 청년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못하고 오로지 도서관에서 시 쓰고 30원짜리 유부 국수 하나 사 먹은 것이 대학 생활의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내 기성 문단에 결국 등단하지 못한 정 동문은 결국 휴학을 택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외할머니댁 부근에서 신춘문에 등단을 위해 1년간 시에 전념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장학금이 나오지 않아 복학할 수 없었던 그에게 최선의 선택지는 군대였습니다.

시 쓰기를 향한 정 동문의 열정은 군 복무 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 무기고 보초를 서거나 내 무반에 불침번을 설 때마다 항상 호주머니 속에 휴지 메모지를 넣어놓고 시를 썼다”고 합니다. 군대에서는 어떻게 시적 영감을 얻었느냐는

질문에 정 동문은 “영감이라기보다는 삶과 기억 속에 가득 들어있는 시들을 발견해 나가는 나만의 독창적인 시각을 기르는 노력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결국 〈침성대〉라는 시를 탄생시켰고 정 동문은 드디어 등단하게 됩니다.

정호승의 양식
사랑과 긍정

가난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힘들었지만, 대학생 정호승의 버팀목은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내 눈물을 닦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해서 돈이 없었고 돈을 달라고 하기도 어려웠지만, 전화로 확인한 부모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시절을 버틸 수 있었다”는

말은 부모님의 사랑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눈물은 남이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닦는 것”이라고 말하는 정 동문은, “자기의 눈물을 스스로 닦을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에 정 동문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굉장히 어렵겠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냐”며 “우리가 감사를 잃으면 분노가 생기기 때문에 감사함을 잃지 않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유일한 방법은 ‘긍정’이라던 정 동문은 “어떤 의미에서 시를 쓴다는 일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눈물을 닦지도 않고서는 남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쓴 시가 나에게 위안이 되고, 인생의 깨달음이 되고, 이해가 먼저 돼야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는 자신만의 철학을 말하는 정 동문의 모습은 미소와 함께 농담을 치던 이전과 달리 매우 진지했습니다. “그런 깨달음들이 다른 사람한테도 위안이 되고 인생의 깨달음이 되면, 비로소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게 되는 거라”며 말을 맺는 모습에서도 정 동문의 결연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
맛있는 굴비가 되어라.

정 동문은 청년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목표’와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인생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라며 “20대 때 내가 내 인생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정 동문은 자신도 매 순간 목표를 정했고, 국문과 입학부터 신춘문에 당선, 국어 교사, 기자 생활 모두 목표를 달성한 일이었다고 말하며 청년들에게 미래 목표를 세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생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한 그는, 청년기는 기초 공사를 하는 시기기에 상당히 고통스럽다고도 덧붙입니다. 그는 20대를 위해 쓴 시 『굴비에게』를 들며 “굴비를 만들기 위해 조기를 천일염으로 절이는 과정에서 조기는 엄청 고통스럽겠지만, 그래야 맛있는 굴비가 된다”며 “20대 때 그냥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굴비처럼 현실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 동문은 자신이 써 내려간 시의 수원지는 ‘인간 삶의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는 인간의 필연적 고통을 사랑과 긍정의 예술로 승화하며 많은 이들을 위로해 왔습니다. 인생에는 시기별로 나름의 슬픔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슬픔을 피할 수는 없다고도 덧붙입니다. 정 동문은 “인생에는 단계별로의 비극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그래도 긍정하고, 견디는 것, 인내가 중요하다”며 재차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인고 속에서 끝내 아름다움을 피운 정 동문의 미소는 그 무엇보다도 견고하고 따뜻했습니다.